

EDITORIAL

## 담낭 용종의 위험인자

백우현

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일산백병원 내과학교실

### Risk Factors of Gallbladder Polyp

Woo Hyun Paik

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, Ilsan Paik Hospital, Inje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, Goyang, Korea

**Article:** Is the Prevalence of Gallbladder Polyp Different between Vegetarians and General Population? (Korean J Gastroenterol 2015;66:268-273)

담낭 용종은 대부분 무증상으로 발견되며, 건강 검진 목적의 복부 초음파가 많이 시행됨에 따라 그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.<sup>1</sup> 대부분의 담낭 용종은 양성 병변이지만 진단 당시 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성화되어 담낭암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깊은 관찰이 필요하다.<sup>2</sup> 이처럼 담낭 용종은 정기적인 추적관찰 또는 담낭절제술 등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료비가 지출되며, 환자에게 암 발생의 위험성에 대한 일정 부분의 불안감 등을 감내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윤리적 문제도 가지고 있다.<sup>3</sup> 따라서, 담낭 용종의 위험인자를 미리 알고 이를 예방할 수 있다면, 불필요한 의료비를 줄이고 환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.

담낭 용종은 지역 및 인종에 따라 다양한 유병률과 악성 진행 정도를 보이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담낭 용종 연구가 중요하다.<sup>4-6</sup> 국내에서 시행된 담낭 용종의 유병률 및 위험인자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모두 건강 검진 수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. 1997년 서울 단일병원 검진센터의 검진 수진자 35,01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담낭 용종의 유병률은 2.9% (1,030/35,012)로 체질량지수가 담낭 용종의 위험인자였다(22.5 kg/m<sup>2</sup> 미만인 군에 비해 25 kg/m<sup>2</sup> 이상인 군이 높은

유병률; OR 1.864, 95% CI 1.458-2.382).<sup>7</sup> 2006년 대구 및 경북 지역 검진 수진자 8,00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담낭 용종의 유병률은 2.2% (175/8,008)였고, 남성(OR 1.434, 95% CI 1.223-1.682), 비만(OR 1.237, 95% CI 1.029-1.486),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자(OR 1.888, 95% CI 1.467-2.430)가 담낭 용종의 위험인자였다.<sup>8</sup> 그러나, 상기 연구들과 같이 건강 검진 수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, 피험자 집단이 전체 사회 인구의 연령 비율 및 성별비와는 다른 분포를 보이기 때문에 실제 국내의 담낭 용종 유병률과 차이를 보일 수 있다. 이에 2014년에 보고된 국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다르게 건강 검진 수진자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하여 일반적 사회 인구의 연령 및 성별 구성과 비슷하게 연구 대상을 모집하여 분석하였다.<sup>1</sup> 이 연구에서 담낭 용종의 유병률은 5.4% (765/14,250)였고, 남성(OR 1.55; 95% CI 1.08-2.23)과 비만(OR 1.90; 95% CI 1.32-2.72)이 담낭 용종의 위험인자였다.

이상 국내에서 시행된 건강 검진 수진자 대상 연구들에서 담낭 용종의 공통된 위험인자는 남성과 비만으로 생각되며, 이는 이번에 발표하는 Jo 등<sup>9</sup>의 연구와도 일치한다. 그러나,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이번 연구는 담낭 용종이 대사증후군과

©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-Commercial License (<http://creativecommons.org/licenses/by-nc/4.0>)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-commercial use, distribution,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,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.  
Copyright © 2015. Korean Society of Gastroenterology.

교신저자: 백우현, 10380,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,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내과

Correspondence to: Woo Hyun Paik,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, Inje University Ilsan Paik Hospital, 170 Juhwa-ro, Ilsanseo-gu, Goyang 10380, Korea. Tel: +82-31-910-7947, Fax: +82-31-910-7219, E-mail: whpaik@paik.ac.kr

Financial support: None. Conflict of interest: None.

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와 채식주의자에서 대사증후군의 발생률이 적다는 보고에 기초하여 “채식주의자에서 담낭 용종의 유병률이 낮을 것”이라는 가설하에 시작되었다. 상기 연구의 결과는 저자의 예상과는 다르게 채식주의자에서 담낭 용종의 유병률이 대조군과 차이가 없었고(3.5% vs. 4.4%,  $p=0.233$ ), 단변량 분석에서도 채식이 담낭 용종에 예방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(OR 0.78, 95% CI 0.51-1.18). 그러나 이번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“채식이 담낭 용종의 예방에 효과가 없다”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. 이는 저자들이 연구 시작 전 예상했던 바와는 다르게 국내의 대표적인 채식주의자로 알려진 조계종 승려군이 실제로는 채식주의자를 대상으로 한 서양의 연구들에서의 채식주의자 집단과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.<sup>10</sup> 기존의 서양 연구에서 채식주의자는 일반적인 서구식 식이, 즉 육류 및 유제품 위주의 식이가 아닌 채식 위주의 식이를 하기 때문에 비만이 적고, 생활습관에서도 운동 등 건강관련 활동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. 그러나, 이번 연구 결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조계종 승려군은 대조군에 비해 오히려 체질량지수, 혈압, 당화혈색소, 중성지방, AST/ALT 등이 유의하게 높으면서 HDL 콜레스테롤은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. 이는 이번 연구 시작 단계의 명제인 “채식주의자에서 대사증후군의 발생이 적다”는 것에 상반되는 결과이다. 또한, 이번 연구에서 채식주의자군과 대조군 간에 연령 및 성별의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 또한 두 군 간의 담낭 용종 유병률을 비교하는 데 있어 제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. 2014년 Lee 등<sup>1</sup>의 연구와 같이 두 군 간의 연령과 성별 등을 맞추어 무작위 표본 추출을 통하여 분석하였다면 이와 같은 치우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, 이번 연구에서는 저자들이 담낭 용종을 예방하는 데 있어 일상생활에서 교정 가능한 위험인자인 식이와의 연관성을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보고이다. 향

후 혼란변수가 잘 통제된 상황에서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역학연구를 통하여 교정 가능한 담낭 용종의 위험인자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고, 이를 통하여 담낭 용종을 예방하고 장기적으로 담낭암의 유병률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## REFERENCES

1. Lee YJ, Park KS, Cho KB, et al. Shifting prevalence of gallbladder polyps in Korea. *J Korean Med Sci* 2014;29:1247-1252.
2. Boulton RA, Adams DH. Gallbladder polyps: when to wait and when to act. *Lancet* 1997;349:817.
3. Bang S. Natural course and treatment strategy of gallbladder polyp. *Korean J Gastroenterol* 2009;53:336-340.
4. Lin WR, Lin DY, Tai DI, et al. Prevalence of and risk factors for gallbladder polyps detected by ultrasonography among healthy Chinese: analysis of 34 669 cases. *J Gastroenterol Hepatol* 2008;23:965-969.
5. Jørgensen T, Jensen KH. Polyps in the gallbladder. A prevalence study. *Scand J Gastroenterol* 1990;25:281-286.
6. Hayashi Y, Liu JH, Moriguchi H, et al. Prevalence of polypoid lesions of the gallbladder in urban and rural areas of Japan: comparison between 1988 and 1993. *J Clin Gastroenterol* 1996;23:158-159.
7. Shim SG, Lee KT, Lee JK, et al. Prevalence and risk factors of gallbladder polyps in health screening subjects. *Korean J Med* 1999;57:1014-1020.
8. Kim SY, Lee HS, Lee YS, et al. Prevalence and risk factors of gallbladder polyp in adults living in Daegu and Gyeongbuk provinces. *Korean J Gastroenterol* 2006;48:344-350.
9. Jo HB, Lee JK, Choi MY, et al. Is the prevalence of gallbladder polyp different between the vegetarians and the general population? *Korean J Gastroenterol* 2015;66:268-273.
10. Phillips F. Vegetarian nutrition. *Nutr Bull* 2005;30:132-167.